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조건이 확연하게 달라졌다. SNS와 인터넷 등 디지털 문화는 개인의 일상을 더 이상 개별적인 수준으로 남겨 두지 않는다. 대중들은 사회의 모든 단면을 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일상을 구성하는 계기나 동기를 발견하는 훈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결국 자신이 살고 있는 생활 단위의 실제적인 삶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우리 삶과 관련한 많은 영역이 생활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아동과 노인 등 직접적인 복지 제도와 개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은 생활 단위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지역문화는 중요한 지점에 위치한다.

바야흐로 '지방 소멸' 담론이 회자되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는 시대에 지역문화를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지역문화는 지역을 왜곡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라는 단어는 '경제 프레임'을 통해 일차리 창출이나 경제적 효과 등 산업의 관점에서 지역을 바라보게 된다. 하지만 지역문화는 가장 객관적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활환경, 기타 자원 등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출발점이다.

물론 지역의 토착 권력과 같은 왜곡된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프레임 차원에서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문화야말로 무너져 가는 지역사회와 지역경제 등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지역의 붕괴에 이르는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삶을 통합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분절적이고 개별적으로 바라보면서 생겨난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역문화의 활성화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중 하나로 생활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생활문화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현재 정책 용어로는 '생활문화'가 통용되고 있으나, 보는 관점에 따라 생활문화와 생활예술 등 용어가 혼

용되기도 한다. 핵심은 자신의 일상적인 삶과 문화(예술)을 연결 지을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생활문화'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생활문화를 지역문화 차원에서 어떻게 구성하고, 담아내고, 풀어내는가에 따라 지역문화의 지형도가 바뀔 것이라는 점이다. 생활체육과 독서 동아리 활동을 포함한 생활문화 영역은 모든 세대를 아우를 뿐만 아니라 그 영역이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바라볼 지점이다.

생활문화와 활성화가 지역문화를 바꾸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데 기여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이해 좌우되는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자율적인 주민활동 영역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 정책 또한 생활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이때 두 가지 정도는 고민해야 한다. 하나는 생활문화라는 게 동아리 중심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어 자신들의 활동을 펼쳐 보일 수 있는 무대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개별적인 민원이 아니라 지역문화 정책 차원에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생활문화가 장르나 분야에 따른 구분이 명확하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활동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장르와 분야 간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이들이 함께 만나는 장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문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시급하다.

생활문화와 활성화가 지역문화를 바꾸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데 기여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문화예술 진흥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으로부터 출발하는 문화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문화 정책뿐만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 차원의 문화 정책이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화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복제하고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만들어 가는 과정 그 자체이다. 이 부분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면 지역문화를 통해 지역사회를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이지만, 이를 간과하게 되면 지역사회와 지역문화는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될 것이다.

종교칼럼

지금 이 순간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아침 일찍부터 처사님이 송풍기로 경내를 청소하고 있다. 며칠 동안 마른 태풍이라도 온 것처럼 바람이 몹시 거세게 불어서, 길가 나무에서 꽃이 무척 많이 떨어져 있었다. 송풍기가 한번 휘익하고 지나가니, 삭발이라도 한 듯 자국이 선명하다. 문득 오래 전, 일본에서의 기억이 떠오른다. 교토의 한 절에 갔었는데 관리하는 분이 역시 송풍기로 경내의 길을 청소하고 있었다. 몇 년 뒤 홋카이도의 비야호를 갔을 때에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번엔 직원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처럼 보이는 나이 든 분 몇 분이 역시 송풍기로 호수나 산책길의 풀 세수를 일일이 불어 내고 있었다. 두 곳 다 내가 보기엔 청소할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로 깨끗한 돌길이었다.

일본이란 나라 전체가 결벽증이라도

걸린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비단 나만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강한 집단주의 의식이 낳은 부작용,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에 유독 예민한 일본인의 정서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절에서 송풍기로 청소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어째서 일본인들은 그토록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거리 청소에 집착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다가 지진이 잦은 일본 특유의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아무리 아끼고 애지중지해도 지진이 나면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 우리들에게 조선인 학살로 유명한 관동 대지진으로 도쿄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을 때, 일본인들 사이에서 이제 도쿄는 영영 회생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파다했다고 한다. 그러나 도쿄는 몇 년 사이에 금새 옛날의 모습을 되찾았다. 일본인들은 지진으로 폐허가 된 절의 터전을 예전의 모습으로 되살리는 노력을 솔하게 반복해왔다. 언젠가 다시 폐허가 되어 버릴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열심히 다시 복구하곤 한다.

일본어에는 영영 이별할 때만 사용하는 작별 인사가 따로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요나라'가 바로 그것이다. 일본인

들의 정서 속에 영원한 이별은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상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영원한 작별을 위한 인사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반드시 사라질 것을 안다면, 그래서 다시는 볼 수 없음을 안다면 지금의 이 모습은 간절할 수밖에 없다. 간절한 만큼 아끼고 소중히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간절함이 오랜 세월을 거치며 이유를 따질 필요없이 응당 그래야 하는 것으로 일본인들의 마음 속에 새겨진 것 같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환경 미화에 대한 결벽증에 가까운 집착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 반드시 사라질 것임을 안다면, 즉 무상(無常)에 대한 자각이 집단적인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서 지나친 결벽증으로 발현된 것이다.

만약 내가 뭔가를 무척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이 언젠가 반드시 사라질 것임을 나의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다. 다만 나의 아둔한 머리가 애써 알려고 하지 않을 뿐이다. 그것은 가족, 연인, 명예, 권력, 재산, 사상, 아니면 젊음일 수도 있다. 그것들은 좋게 말해서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 노골적으로 말해서 집착하는

것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집착이라고 써 놓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사랑니까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랑만큼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하며,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 힘든 단어도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말하고자 할 때 특별히 '자비'라는 표현을 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으로 착각하는 그것은 '집착'이라고 말한다. 집착은 내가 사라질까 불안해하는 마음이며,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확장하려는 욕망이다.

우리라고 일본과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일본은 지진 같은 무자비한 자연환경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더 유난스러울 뿐이다. 미세 먼지도 모자라 초미세 먼지까지 등장해서 우리들의 일상 구성구석에 소리도 없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요즘, 그래도 미세 먼지는 뉴스에서 예보라도 하지만 집착은 아무런 예보도 없고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 집착은 미세 먼지보다 은밀하고 고요하게 우리들의 일상에 진하게 배어 있다. 그러니 일본인들의 청결함을 부러워하기 보다, 오히려 그들의 청결함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안의 집착을 청소하는 것은 어떨까.

기고

국립 난대 수목원 완도로 와야 하는 이유



박재순  
광주전남발전협의회장

필자는 40여 년간 전남도에서 재직하다 퇴임한지 16년이 되었고 그간 공직 생활 중 14년을 산림 부서에서 일한 경험이었다.

완도 수목원은 2033ha 면적의 국내 유일 난대 수목원으로 전체의 70% 가량(1400ha)을 불가사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난대 상록 활엽수림이 차지하는 국내 어디에도 없는 전형적인 난대림 지역이다.

국립 수목원은 현재 경기도 포천에 있는 '국립 수목원'과 경북 봉화군에 있는 '백두대간 국립 수목원'이 있으며, 전북 새만금 수목원과 세종시 수목원 두 곳은 조성 중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제4차 수목원 진흥기본계획(2019-2023)을 마련하고

남부권에 난대 수목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벌써 빠르게 장흥 천관산, 강진 부용산, 해남 달마산, 완도 수목원, 진도 지력산 등 5개 지역에 대한 후보지 현장 실사와 심사를 거쳐 지난 9일 완도 수목원을 최종 임지로 선정했다. 구체적 실현을 위해 유치 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완도 수목원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

발대식에는 고건 전 국무총리, 김창식·이대순·전석홍 전 장관, 오일광 장관은 물론 강진 초당립을 조성한 백제약품 김동구 대표 등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 주셨다.

완도 수목원을 국립 난대 수목원 후보지로 선정할 이유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최적지이기 때문이다. 우선 불가사나무, 구실잣밤나무, 뽕나무, 황칠나무 등 780여 종의 자생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연중 기온이 섭씨 14도 이상으로 난대 수목이 잘 생육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평가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도 일치했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완도 수목원이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난대림과 완도군

의 풍부한 해양 자원을 연계해 세계적 생태 관광 명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6월까지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7월 산림청 현장 심사와 타당성 평가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립 난대 수목원은 200~500ha 규모로 1500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으로 완도 수목원과 경남 거제 수목원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위원인 필자가 볼 때 거제는 난대 지역의 기후 조건을 갖추고는 있지만 난대 상록 활엽수림의 자연 임상은 극히 빈약한 실정이다. 이미 대규모 난대림 권역이 조성돼 있는 완도와 비교하면 거제는 이제 나무를 심어서 조성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완도 수목원이 비록 대도시에서 거리가 멀고 도립 수목원이다 보니 예산의 집중 투자가 부족해 관광객이 많지는 않지만 학술적으로는 매우 가치가 있는 수목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완도 수목원이 국립 난대 수목원이 된다면 1400ha의 난대 상록수림 자연 임상은 그대로 배후에 두고 평지의 전시 구역을 확보해서 거대 온실과 학습장, 난대 수종 씨드 볼트

(seed vault, 종자저장고) 등을 조성하면 천연 난대림과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리라 생각한다.

전남도와 완도군에서는 완도 수목원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남해고속도로, 무안-광주 고속도로, 광주-완도 고속도로(2026년 완공 예정), 보성-임성 철도(2022년 완공 예정), 국도 13호선, 국도 77호선 등 국도의 기간망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완도 수목원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치 논리 개발이 필요하고 난대림 연구소 기능과 지역 대학과의 교육 기능 강화에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완도군의 해양 치유 산업과 연계할 경우 난대림 치유 기능이 극대화되는 시너지 효과를 부각시키고 완도군의 숲, 해양, 기후 등 환경적인 요인의 우수성이 향후 산림청 실사에 반영되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필자도 유치 위원으로서 미력하나마 사 위원 참여가 예상되는 인력 풀을 구축하고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완도 수목원이 국립 난대 수목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社說

오죽했으면 국회의원을 소환하자고 할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정치권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최근 답을 내놓은 것이다. 북기왕 청와대 정부비서관은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만 소환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 이슈가 된 데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불만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한 데도 정쟁만 벌이고 있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국민소환제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한 건도 없었고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추경안도 50여 일째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청원에 참여한 사람도 한 달 만에 21만 명을 넘어섰고, 여론조사(리얼미터)

결과 국민소환제를 찬성하는 국민 역시 77.5%에 이르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로 국민을 선동하는 야당 탄압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물론 야당의 주장처럼 청와대가 국민의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정국 파행의 책임을 국회에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할 수도 있겠다. 또한 청와대 정부라인이 몰림 집착을 통해 대화로 국교 정상화를 꾀하기보다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오죽했으면 우리 국민이 정당 해산 청원에 이어 국회의원을 소환하자고 목소리를 높일까.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까지 준 이유는 민생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다. 일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다면 국민의 손으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소환제를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함께 직접 민주주의의 3대 제도로 두고 있는 이유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6·15선언 19주년 남북 관계 개선을 기원한다

내일은 6·15남북공동선언 19주년이 되는 날이다. 19년 전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평양에서 만나 4시간여의 회의 끝에 공동선언문을 만들어 냈다. 두 사람은 특히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이루자는 데 뜻을 모은 뒤 그 내용을 공동 선언문에 담았다. 6·15 공동 선언은 분단과 통일에 대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에서 나왔고, 남북한 모두에게 희망을 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최근 몇 가지 남북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이는 것은 고무적이다.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심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판문점에 보내 고(故) 이희호 여사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한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한

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대북 메시지를 발송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외교’를 재개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옛그제 백악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아름다운 친서, 매우 따뜻하고 매우 멋진 친서”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의 친서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5일 회담에서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선언하고 경제협력을 비롯한 교류 활성화에 합의하는 등 역사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일구 냈다. 뜻깊은 6·15남북공동선언 19주년을 계기로 한국-미국-북한 정상이 다시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개선 및 비핵화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한다.

**無等鼓**

‘투혼’.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서 한국 선수들은 이 두 글자를 유니폼에 새기고 뛰었다. 월드컵에서는 특히 부상 투혼이 많았다. 김태영은 코패 부상으로 ‘마스크 투혼’을 펼쳤고, 황선홍과 이임생은 머리에 붕대를 감았지만 피를 흘리며 공중볼을 다뤄 지켜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우리 선수들은 부족한 기량을 정신력과 투혼으로 만회하려 이를 악물고 뛰었고 실수를 하면 자책감에 시달렸다.

1998 프랑스월드컵에서 하석주는 맥시코전 선제골을 넣고도 백테클로 퇴장 당해 ‘영웅’에서 ‘역적’으로 전락했다. 결국 비난에 시달리고 신변의 위협까지 느꼈던 그는 마음속에서 꼭꼭 숨겨 두었던 당시의 심정을 20년이 지난 후에도 토로했다.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사람들을 피해 낚시를 갔는데, 첫 낚시에서 곧바로 잉어 한 마리가 올라왔어요. 잉어의 눈이 마치 내 눈처럼 불쌍하네요. 그래서 잉어랑 대화하려 한 없이 울었죠”

대표 팀 주장 기성용은 언행에 대한 비난과 기량에 대한 찬사를 동시에 받기도 했다. 그는 “언제까지 세계 무대에서 정

신력과 투지만 얘기할 거냐? 이런 거 말고 우리의 색깔을 가지고 축구를 추구할게, 전술적으로 세련된 경기를 한 번쯤 해보고 싶다. 은퇴하기 전에” 그러나 그의 꿈은 A매치 110경기를 치르고 은퇴할 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월드컵 등 큰 대회 때면 주변이나 언론에서 쥐어짜는 듯한 무엇인가를 얘기해 항상 쫓기는 입장이었다고 아쉬워했다.

죽기 살기로 뛰며 투혼을 발휘하던 한국 축구의 오랜 전통과 결별하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 신선함을 주고 있다. U-20 월드컵에서 결승에 오른 우리 선수들이다. 1999-2001년생이 주축을 이룬 이들은 대회 전 ‘16강도 쉽지 않다’는 전망을 비웃듯 ‘우승이 목표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수준급 개인 기량과 다양한 전술 변화. 그리고 통쾌한 역전승. 재기발랄한 이들은 그라운드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승부를 즐기며 신나게 뛰었다. 팀 동료들을 위한 배려와 겸손, 품격 있는 매너도 넘친다. 밀레니엄 세대의 ‘즐기는 축구’가 역사를 새롭게 쓰고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유재만 편집1부장 jkyou@

**즐기는 축구**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政</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담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체육부 220-0633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